

일본, 2010년 NOx 54% 감축목표

埼玉현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중심 ... 저공해차 도입 등 추진 나서

일본 사이타마(埼玉)현과 치바(千葉)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(NOx) 및 입자상물질(PM) 감축에 착수하기로 했다.

자동차 NOx·PM법에 따라 책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량삭감계획이 공해대책회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, 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NOx 배출량은 1997년 대비 54% 감축된 6만8644톤, PM은 84% 감축된 2981톤이다.

총량감축계획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정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지사가 2002년 4월에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기본방침에 따라 책정한 것이다.

대상지역에는 사이타마(埼玉)현과 치바(千葉)현, 도쿄(東京都), 가나가와(神奈川)현, 아이치(愛知)현, 미에(三重)현, 오사카(大阪府), 효고(兵庫)현 내 276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됐는데, 이 중 도쿄 내 51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업이 지연돼 가을경에 포함될 예정이다.

일본의 NOx 감축계획의 목표량

(단위: M/T, %)

구 분		사이타마 (埼玉)현	치바 (千葉)현	가나가와 (神奈川)현	아이치 (愛知)현	미에 (三重)현	오사카 (大阪府)	효고 (兵庫)현	합 계
1997년(현행연도)									
①대책지역에서 사업활동 등에 따라 발생, 대기 중에 배출되는 총량(1호 총량)	NOx	53,317	52,221	77,000	94,731	18,325	53,450	58,600	410,644
	PM	21,126	21,252	22,770	45,672	10,013	20,410	23,179	164,422
② ①중 자동차 배출총량(2호 총량)	NOx	23,105	17,980	21,100	35,046	5,199	27,260	19,760	149,450
	PM	2,900	2,206	2,600	4,844	770	3,170	2,531	19,021
2010년 (목표연도)									
③대책지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 등에 따라 발생, 대기 중에 배출된 총량(3호 총량)	NOx	32,813	40,756	59,500	60,441	14,342	43,020	45,770	296,642
		▽38	▽26	▽23	▽36	▽22	▽20	▽22	▽28
	PM	13,506	14,122	19,220	31,119	9,068	15,850	17,022	119,907
▽36		▽34	▽16	▽32	▽9	▽22	▽27	▽27	
④ ③중 자동차 배출총량(4호 총량)	NOx	8,301	7,293	10,400	12,459	1,741	16,450	12,000	68,644
		▽64	▽59	▽51	▽64	▽67	▽40	▽39	▽54
	PM	244	277	460	725	104	740	431	2,981
▽92		▽87	▽82	▽85	▽86	▽77	▽83	▽84	
2005년 (중간목표)									
⑤ ④ 달성을 위해 중간연도까지 달성해야 할 자동차 배출총량	NOx	14,123	10,986	15,000	20,978	2,384	20,950	17,200	101,621
		▽39	▽39	▽29	▽40	▽54	▽23	▽13	▽32
	PM	733	572	890	2,046	202	1,200	1,352	6,995
▽75		▽74	▽66	▽58	▽74	▽62	▽47	▽63	

총량감축계획에 따르면, 기준연도가 되는 1997년 자동차로부터의 배출량은 7현 합계로 Nox가 14만9450톤, PM이 1만9021톤으로 나타났다.

중간목표인 2005년에 Nox를 1997년 대비 32% 삭감된 10만1621톤, PM을 63% 감소한 6995톤으로 줄이고

나아가 2010년에는 NOx를 7만톤, PM을 3000톤까지 삭감시킬 계획이다.

계획달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각 현은 개별적인 자동차대책강화와 차종규제, 저공해차의 보급촉진, 교통수요의 조정·절감, 교통흐름대책 추진, 국지오염대책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.

저공해차는 아이치(愛知)현의 300만대를 시작으로 오사카에서 지정 저공해차를 포함한 200만대, 효고현에서 100만대 등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있다.

주요 시책의 삭감효과에 대해서는 NOx에서 저공해차 도입효과가 7현 합계로 연간 4879톤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교통흐름대책의 1246톤, 조례에 따른 규제가 1006톤이 되고 있으며, PM에 대해서도 저공해차의 도입효과인 연 253톤이 1위, 2위는 조례에 따른 규제에 나타났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06>